

문헌을 통해 본 북위의 국가이념과 용문 고양동의 연관성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Ideology of the Northern Wei and
Longmen Guyang Cave Represented in the Documents

정 현 숙(Jung, Hyun-Sook)*

◁ 목 차 ▷

1. 서론	3.2 공양인 상에 쉰 服制개혁
2. 문헌에 나타난 효문제의 정치 이념	3.3 조상기 글씨의 변화
3. 고양동에 표현된 문화개혁	4. 결론
3.1 명문에 반영된 改姓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한문화를 표방한 북위의 문화개혁의 중요한 부분들이 천도 후인 낙양 시기에 개착된 용문 고양동 석굴에서 어떻게 표현 되었는지를 통해서 북위의 정치와 예술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당시의 황족과 권세있는 귀족들이 첫 골인 고양동에 많은 彫像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였다. 이들은 명문을 통해 성(姓) 개혁을 실천했고, 황족들은 공양인 상을 통해 복제(服制) 개혁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냈고, 글씨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호를 선보였다. 개성(改姓) 이전의 선비족들은 그들 고유의 다음절 성을 그대로 사용했으나, 개성 이후의 황족들은 모두 '탁발'을 '원'으로 고쳤다. 또 공양인의 모습에서 복제 개혁 이후에도 선비족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전통 의상인 좁고 짧은 튜너를 입고 있었지만, 황족들은 천도 이전인 486년 이후 한족 복식인 길고 넓은 겹옷을 입었으니 고양동 석굴에서도 당연히 그런 모습이다. 조상기의 글씨도 크게 두 가지 필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방필의 웅강한 '위비체'이고, 다른 하나는 힘차면서도 유연한 필법을 지닌 것이다. 전자는 낙양에 세워졌던 한·위의 「석경」의 서법을 근거로 한 것이며, 후자는 당시 남조에서 유행하던 이왕(二王)의 서법을 모범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당시 북위에서 실행된 문화개혁과 전보다 빈번해진 양자 간의 문화교류의 결과이다. 물론 지역과 시대가 접해 있으면 그 글씨도 점진적으로 변하지만 이 시기의 북위는 스스로 한문화로의 변화를 원했다는 점에서 원·청과 같은 이민족 국가와는 다르다. 용문

* 원광대학교 대학원 강사 (jung9446@hanmail.net)

접수일: 2006년 12월 1일 최초심사일: 2006년 12월 3일 심사완료일: 2006년 12월 18일

조상은 “부와 권세를 가진 황족과 귀족계급의 취향을 그대로 드러낸 불교예술이 국가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要語 : 북위, 효문제, 용문 고양동, 문화개혁, 한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art by examining how the important parts of the cultural reforms of the Northern Wei, which copied the Han culture, were expressed in the Longmen caves, excavated after the move of the capital to Luoyang, Henan.

At the time the royal family and powerful aristocracy made many donations to make inscriptions in the Guyang cave, the first one in the Longmen caves. In the inscriptions, they used their changed names, made their figures represented as the images of donors, and showed their calligraphic styles in the writings. While the Xianbei aristocracy who did not reform their names yet, kept their multi-syllabic surnames, the royal family changed their name from Tuoba to Yuan. Even after the costume reform, the Xianbei kept wearing their traditional tunics, but the royal family changed the costume from the traditional tunic to the long wide Han dress. The calligraphy exhibits two different regular styles: the strong angular *Weibei style* and the soft flexible style. The former was inspired by the *Stone Classics* of the Han and Wei, elected in front of the National Academy at Luoyang, and the latter followed after the Two Wang style which was popular at that time in the Southern Dynasties.

This is the result of the cultural reforms in the Northern Wei and the frequent contacts between the Northern Wei and the Southern Dynasties. When the periods and regions were close, the calligraphic styles also gradually changed. However, the Northern Wei of the time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Yuan and Qing periods, because the regime itself would like to follow the Han culture. In this respect, the Longmen Statues evidence the close relations between the state ideology and the Buddhist arts which represented the tastes of the royal family and powerful aristocracy of the time.

Key words : Northern Wei, Emperor Xiaowen, Longmen Guyang Cave, Cultural Reforms, Sinicization

1. 서론

북위(386-534)는 4세기 초에서 6세기 말에 걸친 250여 년간의 남북조시대에 북조에서 건국되었다가 멸한 5호16국 중에서 가장 수명이 긴 왕조였다. 그런 만큼 북위는 중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문화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히 크다.

선비족 탁발(拓拔) 씨가 세운 북위는 건국 초부터 외래 종교인 불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유교를 숭상하여 국가이념으로 삼았다. 도무제(道武帝: 386-408 재위), 명원제(明元帝: 409-423 재위)로부터 시작된 북위 황제들의 한문화에 대한 동경은 6대 황제인 효문제(孝文帝: 471-499 재위)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욕망을 지닌 효문제는 마침내 전통적인 중국 문화의 산실인 낙양(하남성)으로 천도하기에 이른다. 천도 후 황실의 후원 아래 개작된 용문석굴에는 한문화를 따른 북위의 국가이념이 다양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첫 굴인 고양동에서 황실과 당시의 지배층인 귀족들은 불상을 공양하면서 많은 조상기를 남겼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와 같은 여러 가지 문헌에 나타난 효문제의 국가이념이 용문조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그 둘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공양인과 그 신분이 분명하면서 서예술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용문20품」 중에서 고양동에 만들어진 19품이다.

2. 문헌에 나타난 효문제의 정치이념

472년, 5대 헌문제(獻文帝: 466-470 재위)의 아들인 효문제는 약관5 세에 황위에 올랐다. 따라서 그의 조모, 즉 4대 문성제(文成帝: 452-465 재위)의 황후인 문명태후(文明太后: 442-490)¹⁾가 약 20년간 수렴청정을 했다. 한족 출신이었던

1) 문명태후: 풍황후(馮皇后)인데 봉어한 후 문명태후에 봉해졌다. 『위서』 권13 “문성문명황

문명왕후는 선왕들의 뒤를 이어 이민족의 종교인 불교를 숭상함과 동시에 중국의 유가사상도 흡수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황손인 효문제를 유가식으로 교육시켰다. 또한 그는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국가의 모든 제도를 중국식으로 바꾸는 ‘태화개혁’(太和改革: 477-499)을 실시했다.

490년, 문명태후가 붕어하자, 효문제는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친정(親政)을 시작했고, 조모의 정신을 이어 불교를 지원하면서도, 유교를 흡수했으며, 더욱 강화된 문화개혁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수도 평성(平城: 지금의 산서성 대동)에서는 탁발씨의 전통적인 의식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491년 효문제가 거행한 탁발씨의 하늘에 대한 제사 의식을 당시 평성을 방문한 남조의 두 관리, 효침(孝琛)·범운(范雲)이 보았다.

평(宏)은 서쪽 외곽, 즉 전 천단으로 갔다. 거기서 평과 20여 명의 신하들은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제단을 빙빙 돌았다. 평은 한 바퀴, 신하들은 일곱 바퀴 돌았다. 이것을 ‘답단’(躡壇: 제단을 밟는 것)이라 했다. 다음날 다시 군복을 입고 제단에 올라 하늘에 제사지냈다. 평은 또 제단을 세 바퀴, 신하들은 일곱 바퀴 돌았다. 이것을 ‘요천’(繞天: 하늘을 도는 것)이라 불렀다.²⁾

군복과 말을 유목민족인 북위의 상징이고, 황제와 신하들이 그런 복장으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은 북위가 무력을 즐기는 야만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효문제가 갈망한 문명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 이유로 그는 다음해인 492년에 의식의 일부를 폐하고, 천도 후인 494년에는 마침내 전부 폐지하기에 이른다. 그는 이러한 평성을 미개한 도시라 생각하고 중국문화의 상징인 낙양으로의 천도를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대대로 북에서 살아온 선비족의 반대에 부딪힐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천도를 남정(南征)이라는 정복전쟁으로 가장했다. 493년 7월, 효문제가 남정 전날 밤 가진 임성왕(任城王) 원징(元澄)과의 대화에서

후풍씨,” 328-330. 참조.

2) 「남제서」 권57, 991. 평은 효문제의 이름이다

“宏西郊即前相天壇處也。宏與僞公卿從二十餘騎戎服繞壇。宏一周，公卿七匝，謂之壇。明日復戎服登壇祀天。宏又繞三匝，公卿七匝，謂之繞天。”

황제가 결정한 남하의 진정한 목적을 알 수 있다.

정말로 오늘의 행동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일어나 평성으로 옮겨와 살았다. 비록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지 못했다. 이곳은 무력을 사용하기에 알맞은 땅이지 문덕(文德)으로 정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참으로 [여기에서는] 풍속을 옮기고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다. 효산(峯山)과 함관(函關)은 황족의 거주지로 만들고 황하와 낙수(洛水)는 왕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크게 일으켜 중원에서 훌륭한 집을 만들고자 한다. 임성왕의 생각도 같은가?³⁾

이것은 효문제의 남정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어 왔던 단순한 남조와의 전쟁이 아닌, 천도를 위해 사전에 계산된 계획임을 말해 준다. 신하들의 반대를 예견하여 꾸민 이 계획은 결국 채 50년도 되기 전에 동족이 일으킨 혁명으로 북위의 멸망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천도 후인 495년, 육예(陸叡)·원찬(元贊) 등에게 한 말에서 효문제의 천도 목적이 다시 확연히 들어난다.

북쪽 사람들은 매일 그들이 어찌하여 글을 사용하고 알아야 하느냐고 말한다. 짐은 이것을 듣고 매우 놀랐다. 지금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성인들이다. 짐은 9년간 예를 행했고, 3년간 관료들을 두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예와 교육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천자가 되었는데 어찌 중원에서 [무엇을] 얻겠는가? 나는 경들의 후손들이 넓은 견문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기를 바란다. 만약 영원히 항산 북쪽에 살면서 문화를 좋아하지 않는 주인을 만나면 그들은 부지를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⁴⁾

효문제가 말한 위의 두 글은 낙양으로의 천도의 직접적인 이유가 무(武)보다 문(文)을 중시한 중화문화를 실시하여 천하통일을 이루는 것임을 말해준다. 472

3) 「위서」 권19/2, 464.

“今日之行，誠知不易。但國家興自北土，徙居平城，雖富有四海，文軌未一，此間用武之地，非可文治，移風易俗，信爲甚難。峯函帝宅，河洛王里，因茲大舉，光宅中原，任城意以爲何如?”

4) 「위서」 권22/1, 550.

“北人每言北人何用知書，朕聞此，深用撫然。今知書者甚衆，豈皆聖人。朕自行禮九年，置官三載，正欲開導兆人，致知禮教。朕爲天子，何假中原，欲令卿等子，博見多知。若永居恒北，值不好文主，卿等子孫，不免面牆也。”

년, 문명태후에 의해서 시작된 ‘태화개혁’은 490년, 그의 사후 효문제에 의해서 더욱 꾸준히 지속되었다. 493년, 효문제는 남정을 가장해 남하했고 494년, 공식적으로 천도를 선포했다. 그 직후, 효문제는 문화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했고 그의 치세 말년에는 북위의 한화정책이 절정에 달했다. 효문제의 문화개혁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으면서 탁발씨와 한족의 문화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자.

- 491년 명당(明堂)⁵⁾과 황실 사당을 건설한다. (『위서』 권7 7/2, 168)
- 492년 중국 고대성인 숭배를 재정비한다. 요임금은 평양(平陽), 순임금은 광녕(廣寧), 우임금은 안읍(安邑), 문왕은 낙양에 모신다. 이 모든 제사는 그 지방의 권한으로 행한다. 공자의 시호를 바꾸고, 황제가 공자의 사당에서 공자에게 제사를 지낸다. (『위서』 권7/2, 169; 권108/1, 2750)
전통적인 탁발씨의 하늘 숭배의식의 일부를 없앤다. (『위서』 권 7/2, 169)
- 494년 탁발씨의 하늘 숭배를 폐지한다. (『위서』 권7/2, 176)
탁발씨의 전통적인 의복 착용을 금한다. (상동)
- 495년 조정에서 북쪽 언어 사용을 금한다. (『위서』 권7/2, 177)
황제가 개인적으로 공자 사당에 제사를 지낸다. (상동)
공자 후손들 중에서 한명을 뽑아 작위를 수여하고, 제사를 위해서 100가구를 하사한다. (상동)
홀어진 고대의 서적들을 다시 모은다. (『위서』 권7/2, 178)
낙양으로 옮긴 사람들은 황하 이남에 묻는다; 대(代)에서 온 모든 사람들은 낙양의 주민으로 등록한다. (상동)
길이와 부피의 단위는 「주례(周禮)」에 따라 개정한다. (상동)
조정의 관복을 제정한다. (상동)
- 496년 황족의 성을 ‘원(元)’으로 개칭한다. (『위서』 권7/2, 179)
선비족 사람들의 성을 단음절의 중국식으로 바꾼다. (『자치통감』 권140, 4397)
관리들의 3년상 실시를 허락한다. (『자치통감』 권140, 4397)
영토 안의 노인들을 화림원에 초청하여 봉양한다. (『위서』 권 72, 179)
동한의 광무제, 명제, 장제의 제사를 위해서 관리들이 파견한다; 한·위·진 황제들의 능 사방 100보 안에서 땃감을 얻거나 집근을 금한다. (상동)

5) 명당: 고대 중국에서 왕이 정령(政令)을 펴던 집으로 선조와 상제를 제사하고, 후의 조회를 받으며, 국가의 대사를 모두 여기에서 행했다. 시대에 따라 호칭이 다른데 하나라에서는 세실(世室), 은나라에서는 중옥(中屋), 주나라에서는 명당이라 불렀다.

위의 조칙에서 볼 수 있는 개혁의 요지는 자신들의 뿌리인 선비족의 전통을 없애고, 한족의 문화를 숭상하는 것이다. 공자를 숭배하고, 3년상과 경로사상을 실천하는 등 전통적인 중국의 유가사상은 국가이념으로 삼으면서, 자신들의 전통 의복 착용을 금할 뿐만 아니라 개성(改姓)과 언어 말살이라는 민족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주·한·위·진의 문화를 계승하고자하는 효문제의 야망은 주목할 만하다.

효문제의 이러한 개혁정신은 문명태후에 의해서 교육된 유가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래 글은 효문제의 문화지향적인 성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황제는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오경」의 뜻을 두루 보고, 편안하게 강론했다. 선생의 가르침 없이 공부하여 그 정묘함을 찾았다. 사서가 전하는 백가에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장자」와 「노자」를 잘 담론했고, 석가모니의 뜻에도 정교했다. 작문의 재주와 넉넉한 기백으로 문장을 잘 지었고 시·부·명·송이 마음대로 일어나 지을 수 있었다. 시문을 짓는 재주가 많았는데, 말 위에서 도 입으로 읊으면 곧 이루어졌고 한 자도 고치지 않았다. 태화 10년(486) 이후의 조서들은 모두 황제의 문장이고 남은 문장이 백여 편이다.⁶⁾

이 글은 효문제가 유·불·도가 모두에 조예가 깊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유가에 깊이 몰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효문제의 성품이 자신이 직접 지휘한 개혁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자명한 일이다.

3. 고양동에 표현된 문화개혁

북위에서 유가사상은 국가이념으로 채택되어 태무제(424-451 재위)의 휘불 기간을 제외한 전기 내내 융성했다. 따라서 전기 말의 실세였던 문명태후는

6) 「위서」 권7/2, 187.

“雅好讀書，手不釋卷。五經之義，覽之便講，學不師受，深其精奧。史傳百家，無不該涉。善談莊老，尤靜釋義。才藻富瞻，好爲文章，詩賦銘頌，任興而作。有大文筆，馬上口授，及其城也，不改一字。自太和十年已後詔冊，皆帝之文也。自餘文章，百有餘篇。”

남편 문성제가 봉어한 후에도 그의 치세 때 시작된, 수도 평성 서쪽 무주산(武州山)에 있는 운강석굴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또 전통적인 중국문화 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관심이 많았던 효문제도 그 유지를 받들어 천도 직후부터 새 수도 낙양의 남쪽 12km에 위치한 용문에 거대한 규모의 석굴을 개착하기 시작했다. 전기와 후기에 각각 만들어진 운강과 용문, 두 석굴은 양식·조각기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 그 가운데 본 연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기의 유무이다.

전기의 운강석굴에서 가장 빠른 것은 11굴의 「483년 조상기」이다. 같은 굴에 495년의 조상기가 있으나 이것은 천도 후 북쪽을 방문한 공양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483년 조상기」가 전기의 것으로는 유일한 것이다.

반면 후기의 용문석굴에는 북위에서 당나라에 걸쳐 2,780여 기가 넘는 조상기가 있다. 그 중에서 서예학자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북위의 「용문20품」 가운데 첫 굴인 고양동에 있는 19품을 위주로, 명문·공양인 상, 글씨에 당시의 개혁정신이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표 1>의 고양동 19품은 대부분 당시의 황족, 지배계급, 성직자들에 의해 공양되었다. <표 1>에서는 연대가 이른 것에서 느린 것으로, 위치는 북벽·천정·남벽의 순으로 나열했다.

3.1 명문에 반영된 개성(改姓)

천도 후의 문화개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효문제는 496년, 북위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조치, 즉 개성을 명한다. 황실의 성인 ‘탁발’은 ‘원’으로, 선비의 다음절 성은 단음절의 한족 성으로 바꾸는 것이다. 496년 전후의 고양동 조상기 명문은 이 조령이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문헌을 통해 본 북위의 국가이념과 용문 고양동의 연관성

<표 1> 고양동 19품⁷⁾의 공양인과 그들의 사회적 지위

	공양인(조상기명) ⁸⁾	위치	기년	신분	길이 (cm: h×w)	옛 이름
1.	尉遲 부인	북벽	495	선비족귀족	100×34	牛廐
2	一弗	북벽	496	선비족 하급관리	11×31	
3	비구 慧威	북벽	498	승	130×40	始平公
4	元詳	북벽	498	황족	88×42	
5	解伯達		태화년간	한족관리	12×15	
6	비구 道匠		500-3	승	22×46	
7	高樹, 解伯都의 32인		502	한족평민	40×28	
8	비구 惠感		502	승	17×40	
9	楊大眼		정시년간	토족 무관	126×42	
10	魏靈藏, 薛法紹		500-3	한족귀족	125×33	
11	태비 侯씨	천정	502	선비족귀족	70×35	賀蘭汗
12	태비 후씨	천정	503	선비족귀족	26×71	
13	馬振拜 의 34인	천정	503	지방한족귀족	62×34	
14	태비 高씨	천정	정시년간	황족	40×26	孫保
15	鄭長猷, 부인 陳씨	남벽	501	한족귀족	50×35	
16	孫秋生, 劉起祖 의 200인	남벽	502	한족관리와 평민	153×50	
17	비구 法生	남벽	503	승	33×34	
18	元燮	남벽	507	황족	23×26	
19	元祐	남벽	517	황족	38×38	

먼저 황족의 경우를 살펴보면, 496년 이후 원상·원섭·원우 3인이 공양한 조상기의 명문에는 성이 ‘탁발’이 아닌 ‘원’으로 기록되어 있다<그림 1: 마지막 행 끝에서 세 번째 글자>; 이러한 이유로 북위를 ‘원위’라고도 칭한다. 이것은 황실이 문화개혁을 실천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해왕 원상은 효문제의 이복 아우로, 명문에 의하면 형과 더불어 남정에도 참여했으며, 형의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인물이다. 그러나 504년, 부에 대한 과욕

7) 명문과 글씨는 이현사의 「중국서법: 용문 20품」 참조. 내용은 정현숙, “용문 20품 에 나타난 북위의 유가사상,” 「동서철학연구」 41 (2006. 9), 239-262 참조
 8) 일반적으로 조상기의 명칭은 공양인의 이름으로 칭한다. 그러나 1, 3, 11, 14는 피고양인의 이름으로 칭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옛 이름 「우궐조상기」는 「위지조상기」로, 「시평공조상기」는 「혜성조상기」로, 「하관한조상기」는 「태비후조상기」로, 「손보조상기」는 「태비고조상기」로 칭한다.

과 불륜으로 그의 모친 태비 고씨와 그의 가정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즐했다. 이 조상기는 생모 태비 고씨와 자신의 평안을 기원한 것으로, 그의 지극한 효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비황족이면서 선비족 귀족 출신의 조상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위지부인조상기」를 들 수 있다. 495년, 장락왕(長樂王) 구목릉(丘穆陵亮)의 부인 위지가 망자 우궐의 명복을 빌면서 공양하고 그것을 기록한 명문이다. 493년은 개성의 칙령이 있기 1년 전이므로 공양인과 그의 남편 모두 선비족의 다음절 성인, '구목릉'과 '위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그림 2: 둘째 행>. 그러나 칙령 후에는 '구목릉'은 '목(穆)'으로, '위지'는 '위(尉)'로 각각 바뀌었다.⁹⁾ 실제로 「위서」에서는 여러 차례 목량으로 사용되었다.¹⁰⁾ 천도 후 대대적으로 만들어진 낙양 북쪽의 망산에서 출토된 그들의 묘지도 이것을 입증한다: 502년의 <목량묘지명>과 517년의 <위부인묘지명>.¹¹⁾

그러나 496년 이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비족의 복성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조상기가 있다. 502년의 「태비후조상기」가 그것인데, 태비 후는 480년에 졸한 남편 하란한의 복을 빌기 위해서 미륵 2구를 봉양하고 그것을 기록했다. 502년은 개성의 명이 내려진지 7년째 되는 해이지만 남편의 생전 성인 '하란'을 그대로 새기고 있다. 북방의 '하란'은 후에 '하'로 바뀌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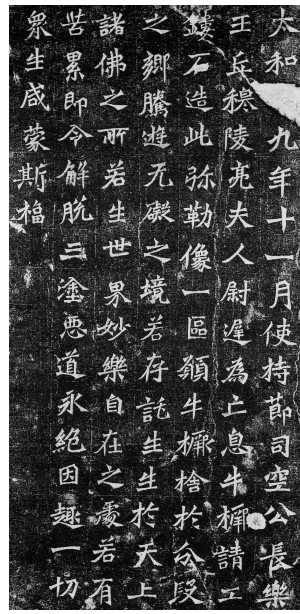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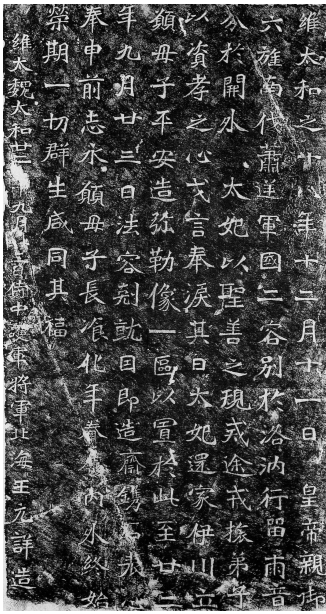
이처럼 개성의 칙령이 황실과 귀족들 위주로 잘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영향이 일반 서민들에게까지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글을 보면 선비족 귀족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위서」 권113, 3006, 3012.

10) 「위서」 권7/2, 165, 173, 181; 권8, 194; 권53, 1182; 권108/1, 2741.

11) 趙萬里, 『漢魏南北朝墓誌集釋』 1권 (臺北: 鼎文書局, 1972), 81; 2권, 도 201-202.

12) 「위서」 권113, 3013.



<그림 1> 원상조상기, 용문 고양동, 498, <그림 2> 위지부인조상기, 용문 고양동, 북위, 용문20품가이드 상, 39 498, 북위, 용문20품가이드 상, 36

3.2 공양인¹³⁾ 상에 쉰 服制개혁

이 절에서는 고양동 19품의 공양인 상이 문화개혁 중 의복개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고양동의 공양인 상은 주상·문수보살과 마유결(摩維結)상과 더불어 하나의 감실을 형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공양인들은 보통 감실 안 또는 바깥, 혹은 감실 아래 부분의 석판위에 새겨진다. 아래에 새길 경우 보통 가운데 부분은 조상기가 있고, 그 양쪽에 예불행렬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고양동의 공양인은 크게 황족과 비황족으로 나눌 수 있다. 비황족은 다시 개인

13) 공양인과 예불인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편적으로 공양인이 예불인의 모습으로 새겨지지만 서로 다를 때는 따로 명시한다.

과 단체로 나뉜다. 개인은 감실의 중앙에 있는 불상 좌우 또는 어느 한쪽에 남자와 여자, 또는 혼자 종종 자식과 같이 모습을 드러낸다. 단체는 대부분의 경우 감실 아래의 석판 좌우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같은 크기와 복장을 갖추고 있다. <표 1>에서의 단체 공양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미지를 새긴 개인 공양인 상을 위주로 고찰해 볼 것이다. 먼저 황족의 모습부터 살펴보자.

원상·법생·원섭 세 감실의 공양인 상은 감실 아래의 직사각형 모양의 돌 위의 조상기 좌우에서 마주본다. 원상조상의 황족 예불행렬은 처음이기 때문에 각의 기법이 약간 서투르게 보이지만 그 구성과 양식은 나머지 둘과 같다. 승법생¹⁴⁾의 공양은 당대 최고 권력자인 원상 모자의 복을 위한 것이므로 그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원섭조상의 황족 고양인들의 세련되고 우아함은 극에 달한다<그림 3>. 이처럼 조각 기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구성과 복장은 모두 동일하다. 공양승이 제일 앞에서 행렬을 인도하고, 공양인인 황족이 큰 모습으로 그 뒤를 따르고, 옆에는 부채를 든 시종들이, 뒤에는 수행원들이 조금 작은 모습으로 뒤따른다; 크기의 차이는 신분의 고하를 나타낸다. ‘관포대수(寬袍大袖)’와 ‘포의박대(褒衣博帶)’한 양식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중국 황족의 상의 전형이다. 게다가 길면서 날씬한 ‘수골청상(秀骨清像)’의 외모 역시 오래전부터 중국회화에서 묘사된 한족의 모습이다.¹⁵⁾ 여기에서 몸종의 모습과 의복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그들의 이미지 역시 남조 묘에서 발굴된 것들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¹⁶⁾

조정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복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효문제와 그의 신하들은 조정에서 건축·음악·복식과 같은 조정 문화의 생산과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중국역사 속의 북쪽의 많은 통치자들처럼 효문제도 새로운 황족의 모습을 창조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썼다. 사서에서도 황족과 관원들의 복제

14) 법생은 원상 가족의 공양승이다. 예불인들은 공양승과 원상의 가족이다. 宮大中, 『龍門石窟藝術』(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1), 70.

15) 李文生, 『龍門石窟與洛陽歷史文化』(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3), 5.

16) 江蘇城美術館 편, 『六朝藝術』(南京: 江蘇美術出版社, 1996), 5, 도 참조

개혁에 대한 기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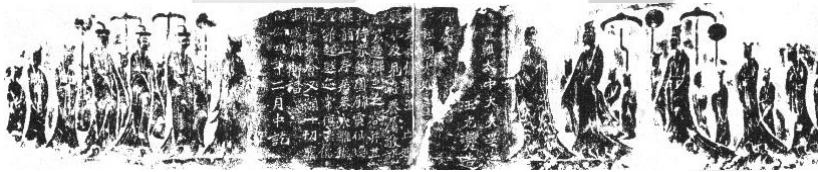
고조[효문제]의 태화 연간에 왕관과 의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대의 예법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6궁의 많은 관리들은 각각 그들의 지위에 의해 구별되었다.¹⁷⁾

효문제와 신하들이 이와 같이 노력한 결과, 태화 중반에 공식적인 관복에 대한 법령이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태화 10년[486] 여름 사월 초하룻날, 처음으로 다섯 단계의 관복에 대한 규정이 시작되었다. 초사흘날 황제는 처음으로 예복을 입고 어가를 타고 수도 서쪽 외곽에서 제사를 지냈다.¹⁸⁾

위의 두 글은 조정의 관복 제정과 그 결과의 하나로 한족 고유의 복장을 입고 왕관을 쓴 선비족 황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효문제는 495년, 낙양에서 다시 관복 제정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황족의 복식이 바로 원상·범생·원섭의 감실 아래 새겨진 황족 공양인 상에서 황족들이 착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위의 황족들은 성은 물론이고, 복제에서도 앞장서 개혁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황족이 아닌 개인 고양인 상을 살펴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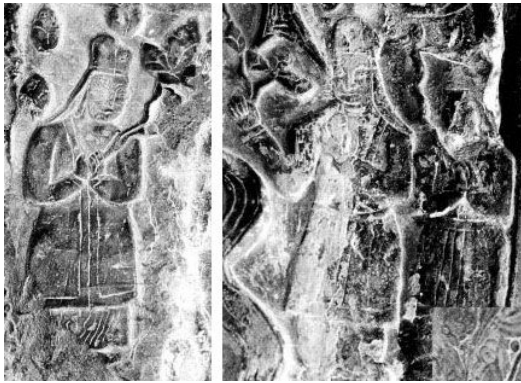
<그림 3> 원섭조상공양인. 용문 고양동, 507, 북위, 劉景龍(1995), 14번

17) 「위서」 권108, 2817.

“至高祖太和中, 始考舊典, 以制冠服, 百僚六宮, 各有差次”

18) 「위서」 권7/2, 161; 권108, 2741.

“十年夏四月辛酉朔, 始制五等公服, 甲子, 帝初以法服御輦, 祀於西郊.”



<그림 4> 위지부인조상 공양인, 용문 고양동, 495, 복위, 劉景龍(2001), 도 65

<표 1>에는 네 점의 비황족 개인 고양인 상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빠른 것은 위지부인이 만든 감실에 있다<그림 4>. 이 감실의 공양인은 모두 3명인데 위지부인의 가족인 듯하다. 여자는 미륵불의 우측에 서 있고, 우측 보살의 뒤에 있는 두 남자는 미륵불의 좌측에 서 있다. 여자는 위지 부인 자신, 앞의 큰 남자는 남편 구목릉량, 뒤의 작은 남자는 망식 우궐이 아닌가 생각된다. 각각 큰 연꽃 봉우리를 하나씩 들고 서 있는 세 사람은 모두 전형적인 선비족의 복장을 입고 있다. 여자는 짧은 소매의 중간 길이 정도의 튜닉과 긴 주름치마에 모자를, 남자들도 짧고 좁은 소매와 무릎까지 내려오는 주름진 튜닉과 통 좁은 바지에 같은 모자를 쓰고 있다. 또 어깨까지 닿는 긴 머리카락도 전형적인 선비족의 머리모양이다.

두 번째 선비족 복장의 공양인은 북벽에 위치한 일불의 감실(496)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손에 연꽃 한 송이를 든 여자 공양인은 낮은 관직의 망부장원조(張元祖)의 명복을 비는 선비족 아내 일불일 것인데 그의 모습은 위지부인과 흡사하다. 또한 498년, 승 혜성이 만든 감실의 공양인들도, 나머지 한 점도 모두 유사한 이미지다.¹⁹⁾ 이들은 앞에서 살펴본 한족 복장의 선비족 황족들의

19) Lee, Hyun-sook Jung, "The Longmen Guyang Cave," (Ph.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5), 191.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그 고유한 의상과 모자, 그리고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들의 혈통이 선비족임을 알 수 있다.

위지부인과 그의 남편, 구목룡은 다음절의 성을 가진 선비 귀족이었다. 구목룡은 전기부터 효문제가 총애한 신하였고, 새로운 수도 낙양 건설의 책임자였다. 502년에 죽을 때까지 구목룡은 북위 조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높은 지위의 구목룡도 자신의 혈통에 맞는 복장을 입고 있다. 이처럼 석굴 속에 묘사된 공양인의 뿌리는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고유의 의상에 의해서 판별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효문제의 천도 후 문화개혁 속에도 복제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 494년 12월에 내려진 탁발씨의 전통의복 착용을 금하는 칙령이 그것이다. 그러나 495년 12월에 새겨진 <위지부인조상>의 공양인들도, 496년 새겨진 일불의 이미지도 모두 선비족 복장을 착용하고 있다. 더욱이 4년 뒤 승 혜성이 조상한 공양인들도 비슷한 이미지이다. 이에 대해 “효문제는 복제 개혁이 발표된 지 2년이 더 지난 뒤에도 낙양의 탁발 여인들이 아직도 그들의 고유한 의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났다.”²⁰⁾

지금까지 살펴 본 개성과 복제 개혁을 보면, 북위의 한화정책은 주로 황실과 귀족계급에 의해서 주도되었지만 선비족 귀족들 사이에서조차 완전히 시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떠했겠는가? 백성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이러한 무리한 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이 북위의 멸망을 앞당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사가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조상기의 글씨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보자.

3.3 조상기 글씨의 변화

북위는 천도 후 황궁 건설과 함께 두 가지의 대규모 건설 사업을 실시했다.

20) Kang Le, “An Empire for a City: Cultural Reforms of the Xiao-wen Emperor(A.D. 471-499),” (Ph.D. diss., Yale University, 1983), 163.

용문석굴과 북망산 묘지, 모든 용문의 조상기 중에서 「용문 20품」은 북망산의 묘지명과 더불어 북위 낙양시기의 서예 연구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서예학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 <표 1>의 19품은 대략 495년에서 507년 사이의 것인데 그 서풍이 모두 같지는 않다. 낙양시기 초의 글씨를 알기 위해서는 천도 전인 평성시기의 글씨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다른 곳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²¹⁾

고양동의 19품의 글씨는 495년에 발표된 ‘북쪽 언어 사용금지령을 지키려는 듯 모두 중국의 문자인 한자로 쓰여 있으며, 서체는 해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방필의 각은 듯한 ‘위비체’(또는 ‘용문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방필의 힘차면서 무밀한 서풍, 즉 ‘위비체’의 전형이다. 「위지부인조상기」<그림 2>·「일불조상기」·「혜성조상기」<그림 5>·「양대안조상기」·「손추생조상기」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위지부인조상기」<그림 2>와 「일불조상기」에서는 붓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각각의 획은 경사진 구성과 짙은 듯 모난 모서리를 가진 기하학적인 도형의 모양이다. 이런 형태가 발달하여 「혜성조상기」에 이르렀고, 「양대안조상기」·「위령장조상기」에서 더욱 더 성숙했다. 청대의 금석학자인 포세신과 강유위는 일찍이 이들의 원류에 대해서 “「양대안조상기」·「위령장조상기」·「혜성조상기」는 「공선비」에서 나와 용의 위엄이 있고 호랑이가 호령하는 법규가 있으며, 「양대안조상기」·「위령장조상기」·「혜성조상기」·「정장유조상기」의 힘차고 도타우며 뻑뻑함은 「수선비」에서 나온 것으로, 위씨의 정통을 이었다”²²⁾고 언급한 바 있다.

어떤 학자들은 글씨의 이러한 특징이 돌이라는 매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상·범생·원섭 감실의 황족 고양인 상에서의 붓놀림을 연상케 하는 유연함을 볼 때 그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물론 포세신과 강유위가 말했듯이 부분적으로 조위의 국가의 대사를 기록한 석비들이 그 연원일 수도

21) 정현숙, “북위 평성시기의 금석문과 그 연원,” 한국서예학회 추계학술대회(2006. 12).
22) 포세신, 『藝舟雙楫疏證』(臺灣: 華正書局, 1985), 38; 강유위, 『廣藝舟雙楫疏證』(臺灣: 華正書局, 1985), 137 참조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문헌의 기록을 통해서 한·위의 낙양 태학 앞에 세워진 「석경(石經)」에서 그 근원을 찾아보고자 한다.

비록 한나라의 「희평(熹平)석경」(또는 「일자(一字)석경」: <그림 6>)이 서진의 마지막 수년간의 전쟁으로 파괴되었지만 조위의 「정시(正始)석경」(또는 「삼자(三字)석경」)은 온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²³⁾ 그러나 시중(侍中) 최광(崔光)이 517년에 올린 표에 의하면 천도 전에 낙주자사 풍희(馮熙)와 상백부(常伯夫)가 사찰 건설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석경」을 쪼개 버렸다.²⁴⁾ 또한 태학 자리에서 발견된 많은 한나라 「석경」 조각들이 쪼개져 건축물의 재료로 사용되었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들의 일부가 493년 효문제의 군대가 낙양에 머물렀을 때까지도 남아 있었다.

낙양의 유물들은 효문제가 다른 후보 도시들을 재치고 낙양을 그의 새 수도로 택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다. 493년 9월, 낙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서진의 옛 황궁 터를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한·위의 「석경」 조각들이 아직 남아 있는 옛 태학 자리를 방문했다.²⁶⁾ 또한 북위가 멸망한 후 폐허가 된 낙양을 다시 방문한 양현지(楊銜之)²⁷⁾도 「낙양가람기」에서 「석경」의 존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23) 현대의 희평 연간(172-177)에 예서 한 서체로만 새겼으며, 조위의 정시 연간(240-248)에 고문·소전·예서의 세 가지 서체로 새겼다.

24) 「위서」 권 83/1, 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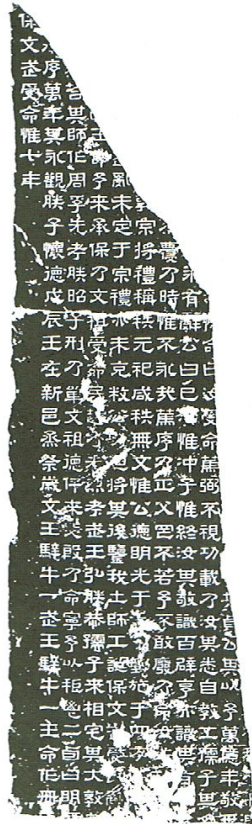
25) 中國社會科學院考古學研究所洛陽工作隊, “漢魏洛陽古城大學遺址新出土的漢石經殘石” 「考古」 4(1982), 381-389.

26) 「위서」 권 7/2, 173.

27) 양현지: 6세기 중엽에 활동한 북위의 북평(北平: 지금의 허북성) 만성현(滿城縣) 사람 성은 양(楊)으로 쓰나, 양(陽) 또는 양(羊)으로 쓴 곳도 있다. 그의 생몰 연대 가계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림 5> 혜성조상기, 용문 고양동, 498, 북위, 용문20품가이드 상, 38



<그림 6> 희평석경, 상서, 낙양, 175, 동한, 북경도서관장 1권, 161

보덕사는 고조 효문황제가 세운 것이다. 그것은 풍태후를 추모하여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며 개양문 밖 3리에 있었다. 개양문 밖 어도 동쪽에 한나라의 국자학당이 있었다. 학당 앞에는 세 가지 서체로 쓴 「석경」 스물다섯 기의 비석이 있었다. 그 양면에는 「춘추」와 「상서」를 베껴 새겼는데, 전서·과두·예서의 세 서체는 한나라 우중랑장 채옹의 필적이다.²⁸⁾ 지금 열여덟 기의 비석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모두

28) 채옹이 쓴 <희평석경>은 예서 한 서체로만 쓰였다. 양현지가 세 서체로 새긴 <정시석경>

상하고 훼손되었다. 또 비석 마흔 여덟 기가 있었는데 양면에 예서로 「주역」·「상서」·「공양전」·「예기」를 베꼈다. 또 「찬학비」 하나가 학당 앞에 서 있었다. 조위의 문제가 쓴 「전론」석비 여섯 기의 비 가운데 대화 17(493)년까지 네 기가 남아 있었다. 고조는 이곳을 ‘권학리’라고 이름 붙였다. [북제] 무정 4(546)년 대장군 고경(高澄)²⁹⁾이 「석경」을 업(鄴)으로 옮겼다.³⁰⁾

이 글에서 양현지는 “「석경」 간석이 효문제의 태학 방문 때인 493년까지도 남아 있었고, 546년 이전까지 낙양에 흩어져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천도 후 494년에서 496년까지 효문제는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유산 보존과 공자 숭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칙령을 내렸다. 같은 맥락에서 당시의 유명한 서가이기도 했던 정도소(鄭道昭: ?-515)³¹⁾· 최광 같은 한족 관리들은 「석경」을 찾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국자궐주에 임명된 후 정도소는 다음과 같은 표를 올렸다.

신은 감히 “존엄한 정치의 도를 위해서는 재능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재능있는 사람을 양성하는데 교육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자학당이 대충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궁에는 악기와 노래 소리만 있습니다. 한·위의 「석경」은 성 남쪽 태학 앞에 있습니다. 작은 언덕은 상해서 파괴되었고,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거기에 노는 아이들은 목초를 먹고 짓밟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슬퍼합니다. 사실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신의 표현을 초월합니다. 신은 참으로 하늘이 자비롭게 응하고, 영혼이 굽어보고, 도움이 전해져 조사할 수

과 혼동한 것 같다.

- 29) 고경(521-549): 자는 자혜(子惠). 북제 사람. 환(歡)의 장자. 문양(文襄)황제에 추증되었고 묘호는 세종이다. 천평 연간(534-537)에 업으로 들어가 정치를 보필하여 이부상서가 되었다. 무정 연간(543-550)에 환이 죽자 대승상·발해왕에 봉해졌다. 『북제서』 권3 “문양제기” 참조.
- 30) 周祖謨, 『洛陽伽藍記交釋』 권3 “城南,” 120-122. 양현지, 서유희 옮김, 『낙양가람기』(서울: 놀와, 2001). 122.
 “報德寺高祖孝文皇帝所立也。爲馮太后追福，在開陽門外三里。開陽門御道東有國子學堂。堂前三種字石經二十五碑，表裏刻之寫春秋尙書二部作 篆科斗隸三種字漢右中郎蔡邕筆之遺跡也。猶有十八碑餘，皆殘毀。復有石碑四十八枚 亦表裏隸書寫周易尙書公羊禮記四部，又讀書碑一所並在堂前。魏文帝作典論云碑，至太和十七年猶有四。高祖題爲勤學里。武定四年大將軍遷石經於潁。”
- 31) 정도소: 효문제의 차남. 정희의 차남. 그의 누이는 효문제와의 사이에 아들 한 명을 두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신의 작은 제안이 모두 받아들인다면 신은 황제의 조령을 구하여 중히 여기고 경서를 존중할 것입니다. 신은 제도를 운영할 기준을 조사하여 의논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개의 대학이 일어나 번성하게 될 것이며, 손상된 비문들을 곧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폐하의 수도에 고대의 경서를 세울 것입니다 그 모범은 쇠퇴하지 않고 널리 퍼져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하를 가진 자들의 아름다운 일입니다.³²⁾

이 표는 정도소의 「석경」 발굴과 보존에 대한 열정과 심지어 한·위의 전통을 따라 낙양에 다시 석경을 세울 생각도 있음을 말해준다. 그 연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불행하게도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517년, 최광도 같은 맥락의 표를 올렸다.

「석경」을 찾는 작업은 저절로 일어나 유씨를 뜨겁게 했고, 조씨의 「진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리하여 처음에는 삼 백여 기였는데 끝에는 약 이십 기를 더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고대로부터 [낙양에서는] 잦은 전쟁이 있었지만 「석경」이 크게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듣고 간 자사들이 낙주에 임하여 많은 절을 지을 때 도인과 속인들이 모두 사용하여 조금만 발굴되었습니다. 그 터가 진흙과 재로 밟혔는데 간혹 이 속에서 「석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황도를 처음 옮겼을 때 오히려 복원될 수 있었으나 군이 국가의 정사를 돌보느라 끝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분명히 관과 개인들이 발굴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점진적으로 벗겨 떨어져 나갔습니다. 봄·가을에 서로로 인하여 쭉과 소테나무가 생겼고, 때가 되면 불을 놓았는데 이로 인하여 「석경」은 더 감소되었고 문자는 더욱 더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오직 자손들의 교육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경전의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만약 상한 것을 복원하여 생업을 부흥시킬 수 없다면 그 치욕은 배로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 국가박사 한 사람을 골라 파견하여 그 일을 맡겨 오직 주로 두루 살피게 하고 말을 달려 밭에 방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것을 밟거나 더럽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비첩을 모아 잃은 것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양이 보충되어야 합니다.³³⁾

32) 「위서」 권56, 1240-1241.

“臣竊以爲 崇治之道, 必也須才, 養才之要, 莫先於學。今國子學堂房粗置, 弦誦闕爾。城南太學, 漢魏石經, 丘墟殘毀, 藜藿無檢, 遊兒牧豎, 爲之歎息, 有情之輩, 實亦悼心, 況臣親司, 而不言露。伏願天慈回神紆矜, 賜垂鑒察。若臣微意, 萬一合允, 求重勅尙書, 門下, 考論營制之模, 則五雍可翹立而興, 毀銘可不日而就。樹舊經於帝京, 播茂範於不朽。斯有天下者之美業也。”

33) 「위서」 권67, 1494-1495.

“尋石經之作, 起自炎劉, 繼以曹氏典論 初乃三百餘載, 計未尙二十紀矣。昔來雖屢經戎

이 표에 대한 답으로 다음과 같은 조칙이 내려졌다.

이것, 즉 「석경」은 곧 학자의 근원이며, 썩지 않는 영원한 표준이다. 장래에 법식을 전하여 현장의 근본이 되게 하고, 곧 그것에 의지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라.³⁴⁾

이를 받들어 최광은 곧 국자박사 이욱(李郁)과 조교 한신고(韓神固)·유섭(劉燮) 등에게 「석경」을 교감토록 했다. 최광은 모자라는 것은 돌을 세고 글자를 합쳐 조금 보충하고 정돈하고자 했다. 이 후 실권을 장악한 효명제(516-527 재위)의 모친 영태후(靈太后)가 폐위되어(520) 그 일이 마침내 그쳐졌다.

이처럼 정도소와 최광의 표는 고도(古都) 낙양에 세워졌던 한·위의 「석경」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흩어진 석편들을 복원하여 후대에 길이 물려 줄 것을 간곡히 청하고 있다. 이 두 표는 두 충신의 한·위의 유적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잘 보여준다. 이것은 「석경」이 북위 황조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기록이다. 황실의 생각 역시 신하들과 같아 그에 상응한 조치를 내렸다. 비록 말기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최광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낙양의 태학 앞에 있었던 옛 「석경」의 존재 자체가 북위 황조의 정당성을 의미한다. 북제가 그것을 자신들의 새 수도 업으로 옮겼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이런 의미를 지닌 「석경」의 서풍이 천도 후 개작된 용문석굴의 조상기 글씨의 바탕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기록도 낙양에 있었던 「석경」의 존재를 확인한다. 북위의 명서가 강식(江式: ?-522)도 「논서표」에서 “책을 편집하기 위해 여러 고서와 함께 위나라의 「삼자석경」의 문자를 모았다”고 말했다.

亂，猶未大崩侵。如聞往者刺史臨州，多構圖寺。道俗諸用，稍有發掘，基礎泥灰，或出於此。皇都始遷，尚可補復，軍國務殷，遂不存檢。官私顯隱，漸加剝撤。播麥納菽，春秋相因，□生蒿杞，時致火燎，由是經石彌減，文字增缺。職忝冑教，參掌經訓，不能繕修頽墜，與復生業，倍深慚耻。今求遣國子博士一人，堪任幹事者，專主周視，驅禁田牧，制其踐穢，料閱碑牒所失次第，量厥補綴。”

34) 「위서」 권67, 1495.

“此乃學者之根源，不朽之永格，垂範將來，憲章之本，便可一依公表。”

신의 6대조 경의 집안은 진유에 있었습니다. 진나라 초에 가서 삼촌의 형 응원은 위기에게서 수학했습니다. 고전의 법으로서 「장」·「아」·「방언」·「설문」은 모두 당시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신이 고래문자를 구해 문장을 짓고 모을 때 허신의 「설문」이 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려서 공자의 「상서」·「오경」·음주·「주편」·「이야」·「삼창」·「범장」·「방언」·「통속문」·「조문중」·「비창」·「광아」·「고금자결」·「삼자석경」·「자림」·「운집」 등의 부의 문자는 육서의 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³⁵⁾

강식이 가려 집자한 책은 바로 「고금문자」40권인데 이를 위해 「삼자석경」의 문자를 선택했다면 당시 그것이 글씨의 범본이 되어 식자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했음을 말해준다. 정도소와 최광의 표가 「석경」의 견재함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강식의 표는 학자들에 의해 그것이 직접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당시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낙양의 태학 앞에 세워졌던 수 십 기의 한·위 「석경」의 서풍, 즉 방필의 힘차면서 무밀한 기운이 용문 초기 조상기의 글씨에 반영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는 「위비체」의 필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유연함을 지닌 서풍이다. 이 서풍의 특징은 가로획이 편평하며, 파책을 부드럽게 길게 늘어뜨려 연미한 느낌을 주며, 획이 얇은 편이다. 「원상조상기」·「태비후조상기」(503)·「원섭조상기」·「원우조상기」 등 황실 공양인의 조상기가 그 예이다. 「원상조상기」〈그림 1〉는 전형적인 위비풍인 「혜성조상기」〈그림 5〉 만큼 힘차지도 규칙적이지도 무밀하지도 않다. 또 전절 부분의 꺾임이 모나지 않으며, 유연한 붓놀림의 흔적이 있다. 이러한 필법은 비록 그 기법이 그리 세련된 편은 아니지만 남조의 첩의 서풍이 부분적으로 깃들여져 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서자들은 당시 유행한 힘찬 위비풍의 글씨와 조금 유연한 필법을 같이 사용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위에서 살펴 본 연미한 붓놀림을 연상케 하는 남조 화풍의 공양인상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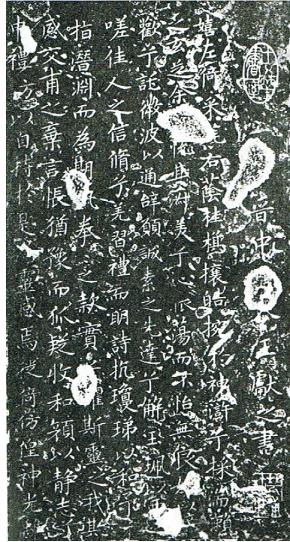
35) 「위서」 권91, 1964.

“臣六世祖瓊家世陳留，往晉之初，與從父兄應元俱受學於衛覬。古篆之法，倉·雅·方言·說文之誼，當時並收善譽。…輒求撰集古來文字，以許慎說文爲主，爰採孔氏尚書·五經音注·籀篇·爾雅·三倉·凡將·方言·通俗文·祖文宗·埤倉·廣雅·古今字詁·三字石經·字林·韻集·諸賦文字有六書之誼者。”

조화를 위해서 일 것이다. 「법생조상기」의 글씨와 고양인 상도 「원상조상기」와 같은 필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두 조상기는 서자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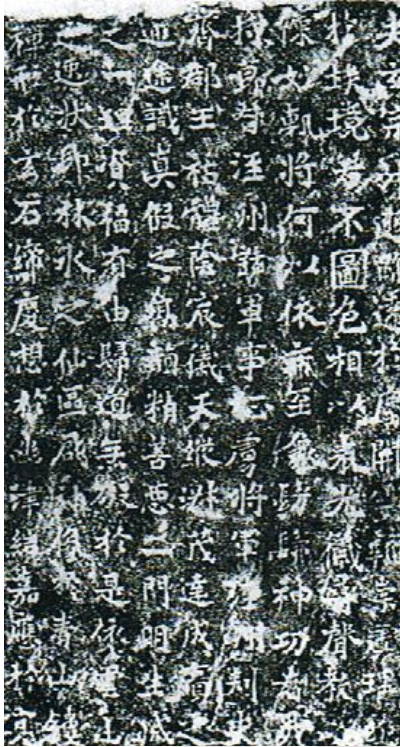


<그림 7> 원섭조상기, 용문 고양동, 507, 북위, 중국서법가이드, 21권, 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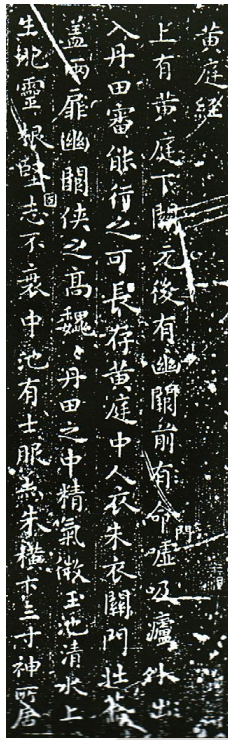


<그림 8> 낙신부, 왕헌지, 동진, 중국 서법예술, 도 158

「원섭조상기」<그림 7>에서도 역시 유연한 붓놀림의 자취를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여러 획들이 아직 딱딱한 ‘위비풍’으로 쓰였으나 전체적으로 유동성과 자유스러움이 넘친다. 같은 굵기의 부드러운 진절은 전형적인 위비체로 쓰인 「위지부인조상기」나 「혜성조상기」와는 크게 다르다. 「원섭조상기」 글씨의 가로획이 행필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필법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위비체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니다. 그 이전에 벌써 구애됨이 없는 유연한 글씨를 쓴 왕헌지와 그의 필법을 이은 왕희지의 3대손, 왕승건 같은 일부 남조 서가들이 글씨에서 이미 표현한 것이다. 「낙신부(洛神賦)」<그림 8>에서 볼 수 있는 왕헌지의 거침없는 붓놀림은 부친 왕희지를 능가하는데, 「원섭조상기」에도 이런 활달함이 깃들여 있다.



<그림 9> 원우조상기, 용문 고양동, 517, 중국서법가이드 21권, 42쪽



<그림 10> 황정경, 왕희지, 356, 동진, 북경도서관 2권, 83쪽

「태비후조상기」(503) 나 「원우조상기」<그림 9>에는 '위비체'의 필법이 거의 없다. 방필과 원필이 같이 쓰였으며, 전절 부분과 파책이 강하지도 가파르지도 굽지도 않다. 오히려 전절 부분은 부드러우면서 가늘고, 파책은 유연하면서 길게 늘어뜨려져 있고 각지지 않아 행서의 필법과 유사하다. 또한 한 글자에서 다음 글자로의 연결 부분에도 필봉이 노출되어 있어 운필이 행서처럼 자유자재한 편이며, 세련되고 정교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종이 위에 쓴 것처럼 유연하다. 금석문인 「원우조상기」는 첩의 느낌이 나는 우아한 기법으로 쓴 해서의 성숙미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것은 연미한 필법을 사용한 왕희지의 「황정견」<그림 10>에 견주어 볼 만하다. 왕희지의 도교 작품의 필법과 닮은 <원우조상기>도 도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 아닐 수도 있다. 원우는 문성제의 아들인 제군왕(齊郡王) 원간(元簡)의 아들이며,³⁶⁾ 당시 황족들은 유가 경전과 더불어 「노자」와 「장자」도 즐겨 읽었다.

그렇다면 황족의 조상기가 비황족 조상기의 ‘위비체’와 다른 필법을 사용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비체의 전형과는 전혀 다른, 이런 종류의 행서의 필법을 지닌 첩의 글씨를 닮은 용문조상기의 해서 근원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남조와의 잦은 공적 또는 사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남조에서 유행하고 있던 이름난 첩의 필사본이 북위에도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사서도 천도 후 고전과 함께 남조의 글씨가 북위에 수입된 것이 사실임을 말하고 있다.

이의 형 순은 자가 자화이다. 그는 9세 때 낙안의 진풍에게 사사했다. 처음에는 왕희지의 「소학편」³⁷⁾ 수 천 글을 썼는데 밤낮으로 그것을 외워 15일 만에 막힘없이 통했다.³⁸⁾

이것은 당시의 황손들이 왕희지의 「소학편」을 서예공부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원이는 임성왕 원운(元雲)의 장자인 원징(元澄)의 장자 순의 아우다. 원징은 효문제와 가장 막역한 황족 중의 한 명이고, 493년 7월에 단행했던 황제의 남정의 진의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신하 가운데 한 명이다.³⁹⁾ 이러한 원징의 아들이 「소학편」을 공부했다면 다른 황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소학편」은 평성과 낙양에서의 범본인 「금취장」에는 없는 남조의 간자체를

36) 「위서」 권20, 528 참조.

37) 본래 「소학편」은 「소학장」의 첫 번째 장인데 후에는 「소학편」도 「소학장」을 나타냈다.

38) 「위서」 19/2, 481.

“彝兄順, 字子和. 九歲師事樂安陳豐, 初書王羲之「小學篇」數千言, 晝夜誦之. 旬有五日, 一皆通徹.”

39) 「위서」 19/2, 462-480 참조

포함하고 있다. 그 필체를 「금취장」과 비교해 보면 거침없고 우아하여 「금취장」과는 다른 새로운 필법이다.

「원우조상기」에 나타난 첩의 필법이나 황손들이 왕희지의 「소학편」을 모범으로 공부했다는 사실은 남조의 첩의 글씨가 북위 황실에서 크게 유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위뿐만 아니라 동시대인 남조의 명서가들도 이왕, 즉 왕희지·왕헌지 부자의 글씨를 범본으로 삼았다. 안지추(顏之推⁴⁰)의 「안씨가훈」, “잡예(雜藝)”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작품들이 양나라의 비각에서 없어진 이래⁴¹ 나는 이왕의 해서·행서 작품들을 많이 모았다. 나는 10권을 얻어 집에서 감상했다. 나는 마침내 도은거[홍경]⁴²·완교주[연(研)]⁴³·소쇄주[자운]⁴⁴의 모든 글씨가 왕희지의 서체에서 얻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왕희지의 글씨는 서예의 근원이었다. 비록 소[자운]이 말년에 그의 서풍을 변화시켰지만 이것은 곧 왕희지 유년기의 서법이었다.⁴⁵

- 40) 안지추(530 또는 531-591): 자는 개(介). 북제 낭야(琅琊) 임기(臨沂) 사람. 안협(顏勰)의 아들, 당 명서가 안진경의 6대조 강릉에서 태어나 어릴 때 가업을 이어 받았다. 본래 양나라 사람이었으나 후경의 난 이후 북으로 건너가 북제에서 벼슬했다. 북제가 망하고 북주주가 위담(魏澹) 등과 「위서」를 다시 고쳤고, 북주 말에 어사상사(御史上士)를 지냈다.
- 41) 비각은 궁궐의 희귀한 도서를 보관하는 곳, 즉 내부(內府)이다. 양 무제(502-549 재위), 원제(552-554 재위) 때는 240,000권이 넘는 글씨, 그림, 서적을 모아 비각에 소장하고 있었다. 548년, 후경(侯景)의 난 때 수도 건강(建康: 지금의 남경)이 불타면서 그림 수 백 점이 불탔다. 경의 난이 평정되고 남은 그림을 강릉으로 가져갔다. 554년, 서위 우근(于謹) 장군이 그 중 서화 4,000여 점을 거두어 장안으로 돌아갔다. 王利器 「顏氏家訓集解」(北京: 中華書局, 1993), 572, 주1; 王利器, 유동환 옮김, 「안씨가훈」(서울: 홍익출판사, 1999), 251-252 참조.
- 42) 도홍경(464-544): 양나라 서가. 자는 통명(通明). 단양 말릉(丹陽秣陵: 지금의 남경). 492년에 표를 올려 벼슬을 그만 두고 구곡산(句曲山)에 은거하여 일생을 살아 ‘산중재상’이라 했고, 스스로를 ‘화양은거(華陽隱居)’라 불렀다. 양 무제와 더불어 여러 차례 글씨를 논했다.
- 43) 원연: 자는 문기(文幾). 진유(陳留) 사람. 관직이 교주자사에 이르렀다. 글씨를 잘 썼는데 행초는 왕희지를, 예서는 종요를 배웠다.
- 44) 소자운(486-548): 양나라 서가. 자는 경교(景喬). 진릉(晉陵: 지금의 강소성 상주(常州)) 사람. 시중(侍中)과 국자좌주(國子左主)를 지냈다.
- 45) 王利器, 「顏氏家訓集解」(北京: 中華書局, 1993), 572; 王利器, 유동환 옮김, 「안씨가훈」(서울: 홍익출판사, 1999), 251.
“梁氏祕閣散逸以來，吾見二王眞草多矣，家中嘗德十券，方知陶隱居阮交州蕭祭酒諸書，莫不得羲之之體，故是書之淵源。蕭晚節所變，及是右軍年少時法也。”

이것은 북위와 남조의 글씨는 모두 왕희지의 필법을 근간으로 하였다는 뜻이다. 더욱이 아래의 기록은 북위에서 성행한 왕희지 글씨의 유행은 북조 말까지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문심⁴⁶⁾은 어릴 때 해서와 예서를 배웠고, 열한 살에 위나라 황제에게 글씨를 헌상했다. … 그의 글씨의 우아함에는 중요와 왕희지의 법식이 있어 필세가 뛰어났다, 당시의 비방에는 오직 문심과 기준만 있었다. … 문심은 비방을 쓴 공으로 200호를 하사받고 조흥(趙興)군수가 되었다.⁴⁷⁾

이 기록은 북위 때부터 활동한 북주의 명서가 조문심도 조위의 중요와 동진의 왕희지의 글씨를 배워 일가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관찰 바를 요약해 보면, 각은 듯한 ‘위비체’로 쓴 용문 고양동의 귀족들이나 일반 불자들의 초기 조상기 글씨는 낙양에 세워졌고 효문제의 천도 후에도 존재했던 한·위의 「석경」에 그 연원이 있다. 반면 황족에 의한 대부분의 조상기 글씨는 이왕을 본받은 남조 첩의 힘차면서 유연하고 우아한 해서에 바탕을 둔 것이다. 비록 이 두 가지 서풍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한·위·진·남조의 서풍을 본받은 것이다. 이것은 효문제의 문화개혁을 통해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왕조의 문화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나아가서는 모방하려는 북위 황실의 정치이념이 서예술에도 반영된 것이다.

4. 결론

북위의 국가이념과 용문 고양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양동의 19품을

46) 조문심(생몰미상): 북주의 서가. 자는 덕본(德本). 남양 원(南陽宛) 사람

47) 「북사」 권812, 2751-2751; 「주서」 권47, 849.

“趙文深小學楷隸，年十一，獻書於魏帝。…雅有鍾王之則，筆勢可觀。當時碑榜唯文深冀雋而已。…文深題榜之功，增邑二百戶，除趙興郡守。”

중심으로 공양인과 피공양인의 이름, 공양인상의 복장, 조상기의 서풍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로 황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당시의 문화개혁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상기를 통해서 본 중국식 개성의 개혁은 비교적 잘 지켜진 편이나 공양인상을 통해서 본 한족 복제 개혁에는 저항도 있었다. 또 북쪽 언어 사용이 금지되어 모든 조상기는 한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비황족 조상기의 글씨는 한·위 「석경」의 힘찬 방필을 사용했고, 대부분의 황족 조상기는 유연한 이왕의 필법을 이었는데 둘 다 분위기가 다른 중국 왕조의 서풍을 이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이 읽을 수 있는 자료로서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본고에서 살펴본 용문 고양동 석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시각적인 자료로서 문헌에 기록된 사실들이 어떻게 예술을 통해 실행되고 국가이념을 표현했는지 보여주었다. 따라서 용문석굴은 사학, 불교학, 미술사학, 서예사학 등 여러 방면에서의 연구가 동시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제이므로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원전>

- 「南齊書」蕭子顯. 3卷. 北京: 中華書局, 1972.
「北史」李延壽. 10卷. 北京: 中華書局, 1972.
「北齊書」李百樂. 2卷. 北京: 中華書局, 1972.
「史記」司馬遷. 8卷. 北京: 中華書局, 1959.
「魏書」魏收. 8卷. 北京: 中華書局, 1974.
「資治通鑒」司馬光. 10卷. 北京: 古籍出版社, 1956.
「周書」令孤德棻. 3卷. 北京: 中華書局, 1971

<동양서적>

- 宮大中. 「龍門石窟藝術」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1.
- _____. 「龍門石窟藝術」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1991.
- 包世臣. 「藝舟雙楫疎證」 臺灣: 華正書局, 1985.
- 北京圖書館金石組.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 北京: 中州古籍出版社. 101卷, 1989-1991.
- 江蘇城美術官. 「六朝藝術」 南京: 江蘇美術出版社, 1996.
- 姜有爲. 「廣藝舟雙楫疎證」 臺灣: 華正書局, 1985.
- 李文生. 「龍門石窟與洛陽歷史文化」 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3.
- 劉景龍. 「古陽洞: 龍門石窟第1443窟」 3卷. 北京: 科學出版社, 2001.
- _____. 「龍門二十品」 北京: 中國世界語出版社, 1995.
- 王靖憲 編著. 「中國書法藝術」 魏晉南北朝. 北京: 文物出版社, 1996.
- 王利器. 「顏氏家訓集解」 北京: 中華書局, 1993
- 趙萬里. 「漢魏南北朝墓誌集釋」 2卷. 臺北: 鼎文書局, 1972.
- 中國社會科學院考古學研究所洛陽工作隊. 「漢魏洛陽古城太學遺址新出土的漢石經殘石.」 「考古」4(1982), 381-389.
- 周祖謨. 「洛陽伽藍記交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0.
- 二玄社. 「中國書法: 龍門20品」 卷20-21. 東京: 二玄社, 1988.
- _____. 「中國書法: 龍門20品がイド」 卷20-21. 東京: 二玄社, 1988.
- 안지추. 유동환 옮김. 「안씨가훈」 서울: 흥익출판사, 1999.
- 양현지. 서윤희 옮김. 「낙양가람기」 서울: 놀와, 2001.
- 정현숙. 「「용문20품」에 나타난 북위의 유가사상」 「동서철학연구」 41(2006), 239-262.
- 천징(陳靜). 김대환, 신창호 옮김. 「진시황평전」 서울: 미다스북스, 2002.

<서양서적>

- Kang, Le. "An Empire for a City: Cultural Reforms of the Xiao-wen

Emperor(A.D.471-499).” Ph.D. diss., Yale University, 1983.

Lee, Hyun-sook Jung. “The Longmen Guyang Cave.” Ph.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5.

K C I